

#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8. 4. 1 ~ 2018. 4. 14 제180호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 공산당의 종교 왜곡, 믿지 않는 북한 청소년 늘어나

라디오 방송, USB 통해 신앙 갖는 부모 늘어나

북한에서 기독교는 미국의 사악한 종교라고 교육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이들이 성경과 복음에 대해 들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탈북민 최요한씨가 말했다고 미국 오픈도어가 밝혔다.

탈북민 출신 기독교인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최 씨는 “어린 시절, 북한에서 자랄 때 기독교는 악하고, 십자가는 마귀의 상징이라고 믿었다.”며 “북한에서 모든 것은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세뇌된 북한의 아이들은 자신의 세대 지도자를 존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들은 점심시간에 김씨 일가에게 기도를 한다. 최 씨는 “우리는 ‘매일의 양식’에 대한 감사기도를 했다. 나중에 이 기도가 주기도문을 가져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김일성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가져온 것도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도 어릴 때 사악하게 그려진 미국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 변화되고 있다. 아이들은 과거처럼 공산당의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

다.”면서 “오늘날 북한의 아이들은 탈북민들을 통해 얻은 정보, 한국어 해외 라디오 방송, 밀수로 들어온 USB 등을 통해 다른 신념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앙을 갖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아이들이 충분하게 자랐을 때 성경과 복음에 대해 들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모든 세대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한다.”며 “만약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위해 계속 기도한다면, 어느 날 북한 아이들은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진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언젠가 그들은 십자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GNPNEWS]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시편 120:2)

**기도 |** 주님, 오랫동안 북한 정권의 거짓말에 세뇌되어 멸망으로 치달던 북한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북한 영혼들의 생명을 건져주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찬송하는 생명으로 회복하옵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제공: WMM

- 스웨덴에서 한복 입은 아이들

**고운** 한복을 입은 아이들의 표정이 설렌다. 조금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한 듯 발을 구르기도 하지만 처음 입어보는 이 옷이 사실은 마음에 든다. 동양인이 입는 옷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에게도 너무나 예쁘게 어울리는 이 옷을 계속 입고 싶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

장 아름다운 옷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나와는 어울릴 수 없는 옷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어울리는 옷으로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나는 어디로 가든 자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린다. [GNPNEWS]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26~27)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55)

## 누가 이 사랑을 아시나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극진한 사랑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개가 옆집 아이를 심하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앓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부모는 그 개를 살려둘 수 없다고 했고, 개 주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보상으로든 아이의 죽음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개를 향해 총부리를 겨

누어졌습니다. 방아쇠가 당겨지고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고 땅바닥에 쓰러진 것은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개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주인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참으로 바보 같습니까? “아무리 개를 사랑했다지만 사람이 개 대신 죽을 것까지 있나?” “얼마나 개를 사랑하면, 인간이 개 대신, 정말 개죽음을 한단 말인가?” 개를 위해 죽은 인간을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간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임에 내어주신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사랑을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사랑은 굳이 필



일러스트= 김경선

요 없어요.”라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에는 너무 큰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완성하신 당신을 위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십시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 INSIDE

**뉴스 |** 아메리카  
“성은 두 개뿐”이라고 밝힌 학생의 교실 추방은 잘못 2면

**기획 |**  
성매매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3면

**인터뷰 |** 오세영 선교사  
“주님은 내 모든 것을 하나씩 꺾어주셨다”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을 통해 허락된 패자부활전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 성매매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매매 산업을 종식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최근 미국 제조계와 할리우드의 성폭력 스캔들이 '미투 운동' 등을 통해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투 운동은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했다. 이후 수많은 저명인사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여성 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며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활발한 토론을 가져오는 한편, 성매매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헌상도 마찬가지로 조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성매매 산업 전 세계에서 1500억 달러

성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1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35억 달러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간을 도구화하는 이 범죄는 마약밀매와 불법무기거래를 넘어서는 두 번째로 큰 국제 범죄 영역으로 산업화되고 있다. 수년간 성매매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들을

치료해 온 L.G. 김슨 목사는 기독교 공동체가 이 전염병을 끝낼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믿음은 성매매 피해자들과 알선 업자들, 그리고 성매매수자들 세 그룹에게 초점을 맞춘 접근법으로 이 비극을 근절시킬 수 있는 능력과 집념을 가지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90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슨 목사는 “이 피해자들은 가장 높은 입찰자에게 소처럼 팔려서 진열대에서 작은 방으로 간단히 보내진

팔리는 반면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100%에서 많게는 1000%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 돈을 번다. 도시문제연구소(Urban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매주 3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알선업자들은 부유해지고, 성매매수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성매매 피해자들은 탈출하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김슨은 덧붙였다.

성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

할 확률이 13배, 마약을 남용할 확률이 26배 더 높다. 그리고 64%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한다.

## 성매매 피해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찾을 것

김슨 목사는 “마음을 치유하고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피해자들이 알선업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그 치유는 십자가에서 시작되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매매 피해자들이 평안을 찾을 것”이

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비극적 상황들과 자연재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불을 밝히는 단체는 그리스도께 믿음의 기초를 둔 단체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유를 위한 여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우리가 해온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우리가 길을 인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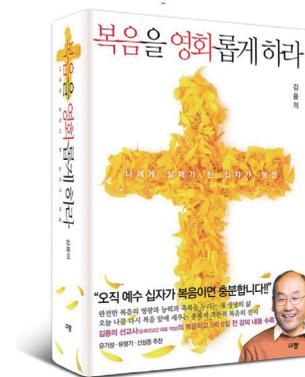
▶ 미국 드라마 '더 바이블' 중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님

다.”고 설명했다. 김슨은 성폭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성적 학대치유 안내책자인 ‘눈물과 각설탕을 통해(Through Tears and Sugar Cubes)’를 조만간 출간한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는 90달러에

한 평균 비용은 1인당 3만 달러지만 그 금액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 학대 피해자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확률이 6배, 알코올을 남용

## 복음학교 강의를 생생하게 담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출간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총체적 복음의 진리 앞에 세운 ‘복음학교’의 강의 내용을 가감 없이 담아낸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부제: 나에게 실체가 된 십자가 복음, 규장 판, 920쪽, 4만5000원)’이 출간됐다.

본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의 필자로 이 책의 저자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 역임)는 서문을 통해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을 외치며 달려왔지만 그 복음이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털썩 주저앉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일련의 시간을 계기로 만나게 된 “총체적 복음을 통해 십자가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신비한 복음의 영광을 만나게 된 것이 복음학교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복음학교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한국, 미국, 독일, 몽골, 싱가포르, 터키,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200여 회 이상 진행돼 왔다.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신청, 복음 앞에 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함축으로 진행돼온 이 과정은 회비 없이 현금으로

만 운영돼 왔다.

김 선교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요청에도 출판을 망설였다.”면서 “또 하나의 지식으로, 잠깐의 감동으로 지나치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지금은 정리된 내용으로 복음학교를 전후로 이 책을 통해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책의 내용은 특별한 지식과 체험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모두가 믿는 바 성경의 핵심진리, 구원의 복음이 실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복음학교의 현장을 가감 없이 전하고자 표현 등 여러 가지 면이 서투르지만 독자들이 복음 앞에 서게 하고자 하는 겸손한 시도이며 다만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만을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복음학교에서 저자를 통해 나눠진 복음의 핵심 진리, 구원의 복음이 실체가 되도록 복음 앞에 서서 복음에만 철저히 집중하고 고민하고 묵숨 걸고 부딪치도록 하는 강력한 훈련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증인의 총 네 파트로 구성돼 있다.

김용의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순회선교단의 사명을 따라 한국 교회와 열방의 선교지와 선교사를 섬기고 있다.

순회선교단 창립 멤버이자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헤브론원형학교와 헤브론선교대학 이사장이자 로그미션(Light Of the Gospel Mission) 대표로 있다. [GNPNEWS]

## 탈북민, 독약 소지한 채 탈북 시도 늘어나

### 한편,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막아야”

최근 북한을 이탈하는 탈북민은 가족단위 탈북을 시도하며, 탈북시도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 독약을 소지하고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7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번)’의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지난 2월 말 북한인권법 제정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북한을 탈출해 한국행을 시도하던 일가족 5명이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 북한으로 압송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마시고 모두 음독 자살했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산하 지방기관 간부인 50대 남성을 비롯해 부인, 아들, 딸 두 명 등 5명의 이들 가족은 강을 건너 탈북한 뒤, 쿤밍 인근의 공안 구류장에 갇혀 있다가 북한으로 압송되던 중이었다.

또한 당시 평양시 평안구역 과학

2동에 위치한 국가과학원 물리연구소의 일용분과에서 근무하다 탈북을 시도하던 중 북한 신의주 보위성으로 강제송환된 현현철씨는 독방에 구류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1982년에 가입한 난민지위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 또 중국이 1988년 비준한 고문방지협약에도 강제송환금지규정이 규정됐으나, 중국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한편은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강제복송 만행을 알리고 구금된 탈북민들의 석방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며 지난 3월 7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강제복송 반대 시위를 가졌다. 이 수요집회는 매월 첫 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우체국 앞의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다.

2005년도에 발표된 미 국무부 탈북자 실태조사(외교부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지난 90년대부터 중국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89년과 99년에 그 수가 가장 많았고 2000년에는 약 7만5000명에서 12만5000명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현재 그 수가 현저히 줄어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 국무부의 2004년 인권보고서의 중국 부분을 인용, 중국이 2004년 수 천 명의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송환시켰다.

김 변호사는 그 이후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표와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전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이 1103명인 점을 감안, 2000년대 후 반부까지 강제복송된 탈북민 숫자는 연평균 수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GNPNEWS]

기획 | 조선선교열전 (18) - 전라남도 편

# 한국에 그리스도를 심은 짧고 강렬한 삶의 증인들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이 민족에게는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유진 벨(Eugene Bell) 목사



▶ 호남선학대학교 내 광주양림선교사묘역의 선교사 묘비의 모습(출처: 한국관광공사)

“대나무로 의족한 소년이 눈에 밝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윌슨(Robert M. Wilson) 의사  
 “여러분은 위대한 꿈을 가지시고 40년이 지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브라운(George T. Brown) 목사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라는 말씀을 따라 1948년에 한국에 온 카딩톤(Herber A. Codington) 의사  
 “이 콩밭에 학교를 세우면 콩알보다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프레스톤(John F. Preston)  
 ‘광주 선교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양림동. 그곳의 광주 양림선교사묘원 모퉁이마다 서 있는 선교사들의

팻말에 적힌 글귀들이다. 선교사묘역에는 선교사들의 이름을 딴 길이 있다. 윌슨길, 브라운길, 카딩톤길, 프레스톤길... 이 땅에 생명을 묻은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묘원으로 가는 길의 이름도 우월순길이다. 우월순은 광주 기독교병원과 여수 애양원병원을 설립한 로버트 윌슨 선교사의 한국 이름이다.

이 양림동 선교사 묘역은 조선시대에는 돌립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버리는 묘지였다. 유진 벨 선교사는 이 산에 나무를 심고 산자락에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웠다. 묘원은 호남선교를 위해 헌신한 26명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 등 45개의 비석이 있는 호남기독교의 성지다.

한문으로 ‘오목사(吳牧師)’라고 쓰인 비석은 클레멘트 오웬(1867~1909, 오기원)의 묘비다. 그

는 이곳 묘원에 처음으로 묻힌 선교사다. 1898년 미남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로 입국, 유진 벨 선교사 등과 함께 목포진료소를 개소했으며, 해남 완도 나주 보성 고흥 등 지방을 순회하며 많은 교회를 설립했다. 가난한 자의 이웃을 자처했던 그의 집에는 양림전에 있던 많은 거지와 환자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그는 42세로 숨졌다. 오웬 선교사가 소천하자 그의 아내는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가 네 딸과 함께 귀국했다.

윌슨은 고아의 아버지였으며, 포사이트 의사가 데리고 온 여자 한센 환자를 치료하여 오늘의 여수 애양원을 이룬 사랑의 실천가였다. 유진 벨(1868~1925년, 배유지) 선교사는 1895년 4월 8일 한국에 파송되어 광주·목포 지역에서 복

음을 전하고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광주 수피아여학교와 송일학교를 비롯, 목포에 정명학교와 영흥학교를 세우고, 광주기독교병원도 설립했다. 그의 사위 윌리엄 린튼 선교사도 전주 기전여고와 신흥고 교장을 지내면서 교육사업에 헌신했다.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출국 당했지만 광복 후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린튼 선교사의 셋째 아들 휴 린튼(인후)과 부인 베티 린튼(인애자)도 평생 전라도 농촌과 섬에서 지내며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섰다.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존 린튼(한국명 인요한)이 바로 이들 부부의 막내아들이다. 유진 벨에서부터 시작된 린튼 가문의 한국선교는 5대째 이어지고 있다.

“이 저녁에 누가 가장 출겠습니까?” 동료들에게 이불과 요를 내놓으라는 따뜻한 강요를 했던 서서평 선교사의 말이다. 엘리자베스 웨핑(1880년~1934년, 서서평)은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9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사가 되었고, 1912년 한국에 파견됐다. 그녀는 저잣거리를 헤매는 여자 나병환자나 거지들을 만나면 집에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자기 옷을 나누어 입혔다. 자

신에게 부쳐온 선교헌금을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몽땅 써 버린 후 정작 본인은 1934년 6월 말 홀로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녀의 나이 51세였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평생 남긴 전 재산은 두 벌 옷, 담요 반장, 강냉이가루 2홉, 현금 27전뿐이었다.

선교사 묘역의 한쪽에는 작은 묘비도 보인다. 헨리 티몬스(Henry L. Timmons, Jr). 생몰년월이 1911년에서 1913년, 불과 이 땅에서 3년의 시간을 살다 간 어린아이이다. 미처 꽃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이 땅에 묻은 선교사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밖에도 양림선교사묘원에 묻힌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많다.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짧고 강렬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생명 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과 아내의 생명, 때로는 형제자매와 몇대 아래의 자손들까지 이 땅에 바치며 그리스도께 헌신했다. 그리고 헌신의 열매는 이 땅의 것이 아닌, 죽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안식이었다. [GNPNEWS]

참고문헌: www.monthly.chosun.com 월간조선



## 선교 통신

### 자녀들은 굶어도 시신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

한국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고 있겠지요?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로운 생명들이 돌아나듯 이 땅의 영혼들에게도 생명의 소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쏟아진 폭우 때문에 옥수수 농사가 흉작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1/3 수준 밖에 추수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한 섬을 찾았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온 식구가 2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쌀 20kg을 구해 전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 있는 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집안에 시신 4구를 모시고 있었고 그것도 11년, 6년, 5년, 3년이나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집의 자녀들은 배고픔으로 굶주려 있는데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지어 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많은 경

비가 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례를 치를 경비가 없어 그 비용을 다 모을 때까지 집 안에 시신을 모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 섬에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곳에 이슬람 세력들이 몰밀 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력을 바탕으로 마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더욱 전심전력으로 섬겨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마을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마을들도 더욱 기독교가 심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왔을 때 그 마을의 영혼들이 그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섬에는 50여 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어떤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에는 현지 사역자 부부를 위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산속마을에서 묵묵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며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산속마을에서 배고픔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니다.

그뿐 아니라 현재 산속마을 3곳에 교회를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준비된 것은 적지만 이 교회들을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이 무슬림의 세력에도, 영적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게 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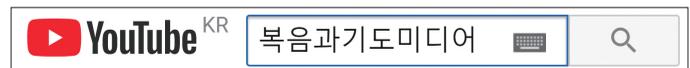
이곳 섬마을을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GNPNEWS]

인도네시아= 함춘환·김성혜 선교사

#### 알림

#### 입체 낭독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복음과기도미디어는 입체 낭독 제작,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복음과기도미디어' '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등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GNPNEWS]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8. 3. 9 ~ 3. 21 (가나다 순)  
 개인  
 강은진 강종채 권혜령 김동희 김선희 김수미 안병운 안영숙 오대현 유자인 이복길 이은주 이정희 임상호 임종태 임항주 장근혜 정진순 조상국 차인순 최정숙 홍혜경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새순교회 선한목자교회 쉼은혜신일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전주은혜샘교회 주관교회 트리니티소프트 협시마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주님은 내 모든 것을 하나씩 꺾어주셨다”

복음을 만나고 삶을 정리해 성경을 가르치는 한 교육기관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셨다. 그리고 학교에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끄셨다. 유명해지고 싶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고 싶었던 사람을, 가장 평범하고 가장 연약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만드셨다. 오로지 살아계시는 주님의 강함과 능력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 따라가는 제자 오세영 선교사

## 침묵하시는 주님

2011년 3월, 총체적인 복음을 만난 후, 주님이 말씀하셔서 직업과 삶의 모든 걸 정리하면서 “그럼 어디로 보내실까? 어디로 나를 드러야 하나?” 물었다.

주님께 나를 드러는 것은 맞는데, ‘어디로’가 포인트였다. 은연중에 내가 했던 무대에 서는 자리로 보내실 거란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잠잠하셨다.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명자로 쓰지 않으시는구나.” 절망이었다. “어떤 선교사요? 어디로요?” 주님은 결국은 내가 뭔가 찾으려고 했던 나를 보게 하셨다. 내 원함의 외침에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시간들 가운데 절망을 짙게 하셨고, 절망이 짙혀지니까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위인’이 되고 싶었다. 그랬기에 특별한 사명자가 되지 못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절망이었다. 복음 앞에서 가장 부딪혔던 것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다. 사실 성경에는 몇몇 빼고는 모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마음이 어려웠다. 그래도 유명해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사역, 그곳에서 이름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나는 유명한 개그맨이 될 줄 알았다. 당시에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일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정말 큰 꿈을 꾸었다. 연예인 선교단체도 만들고, 연예인들 전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내 나름대로 선한 상상들을 하며,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서고 싶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로에서 개그공연을 하고,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게 되었다. 하지만 출연하던 개그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학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리를 옮긴 것 같았다.

## ‘어디로’에서 주님께로

나의 원함의 외침에 침묵하시는 가운데 절망을, 절망 중 주님 부르심의 자리로

## 위인에서 주님 따르는 제자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답보다 놓고 싶지 않은 내 스타일보다 주님이면 충분하도록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십자가와 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죽겠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 믿음으로 어떻게 연합하는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모른다는 것을 감추고 지냈다. 그럴수록 내가 십자가와 연합되지 못한 것에 대해 목마름과 갈망은 점차 깊어져 갔다.

## 1%의 여지를 제하다

그러던 중 한 신앙훈련과정을 통해 갔던 아웃리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개그맨으로 무대에 섰던 그 모든 시간에 한 번도 영광 받으셨던 적이 없다고 알려주셨다. 지금 미디어의 실체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으며, 실제로 내가 돌아보아도 대학로에서 주님의 영광을 짓밟은 자였음을 보게 해주셨다. 그 시기에 나는 복음에 목말라하고 예수쟁이라고 욕을 먹기도 했지만, 술도 먹고 죄에 쉽게 넘어졌던 모순된 모습으로 살았다. 무대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1% 영역이었다. 주님은 그것을 끊어내고 선교사로 나를 드릴 것들을 결단하게 하신 은혜의 시간을 열방의 땅끝에서 허락해주셨다. 그렇지만 그 뒤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1%까지는 끊어

내도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내가 주체가 되고자 하는 옛 자아는 계속 남아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에 고백을 받아내셨다. 위인이 되고 싶었던 나에게 주님은 ‘나는 네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해.’라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

## 신학교로 부르심을 받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곳은 복음기도신학교였다.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이곳에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전에 대학을 다니며 조금씩 들었던 신학과 수업에서 쌓인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이 이곳에서는 정말 독버섯처럼 작용했다. 특히 개척 단계의 신학교에 합류했기에,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내 생각을 감추지 못했다. 학교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같이 보게 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 모든 시간 안에 ‘내가 다니던 학교는 안 그랬다. 신학대학은 그렇지 않다.’며 나의 가치와 생각 때문에 많이 부딪혔다. 정말 ‘싸움닭’ 같았다. 건의한 내용들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다. 수업일수와 시수가 적고, 공부하는 과목도 부족한 것 같았다. 이곳에서 배워 실제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데 ‘이

거면 충분한가?’라는 질문들이 떠올랐다. 수업의 질적인 측면도 이것보다 더 깊이 다뤄야 할 것 같았다. 세상의 기준들로 판단하고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결국 리더십을 향한 내 마음이었다.

하루는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셨다.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주님이 원하는 학교라고. 내가 세상에서 봤던 학교와 경험했던 신학이 아니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만큼이라면 충분하냐?” 아멘이었다. 나는 그동안 세상에서 봤던 현실적이고 체계적이고 좋은 것 같은 게 답이라고 생각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면, 너에게도 다냐고 물어보셨을 때, 그거면 진짜 아멘이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기준과 주권을 올려드린 후, 2년 동안 그런 싸움은 없었다. 주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주셨다.

## 공동체에서 드러난 자아

주님은 더욱 나를 깨버리셨다. 신학교에서는 ‘하루에 4가지 순종’을 한다. 묵상-기도-일기-접촉(전도). 이 시간을 통해 신앙생활조차 똥똥 뭉쳐진 내 자아로 사는 나를 드러내 주셨다.

나는 고2 때부터 일기를 썼다.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일기를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일기’의 식양이었다. 내가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주어진 식양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손 글씨로 쓰고 싶었는데 여기서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묵상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다. 주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4학년 때 묵상을 배웠고 실제로 그렇게 묵상을 해왔다. 묵상했던 내 스타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유치하지만, ‘그때는 난 이렇게 했는데.’라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꺾어주셨다.

결혼할 때도, 어려웠던 것은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정말 내가 죽기 싫었다. 누군가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게 싫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는 못하는구나. 형제가 주님께 허락받은 사역을 내가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맞는 모습이었다.

나는 스스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줄로 여겼다. 그런데 실제로는 로맨스를 꿈꾸지만 주도권을 뺏기기는 싫었다. 세상에서 결혼하는 것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정말 죽어야 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것을 알았던 것 같다. 진짜 끝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나에게 조치해주신 것이 있었다. 일주일 전에 이사야서의 ‘함께 경배하라.’라는 말씀을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도, 주님은 계속 말씀으로 약속해주셨다. “고난의 떡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대면해 주실 것이다.” 결국은 주님으로 인해 만족케 하실 것을 말씀해주셨다. 기도실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앞드렸을 때 머리가 아니라 돕는 배필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을 기쁘게 누리게 되었다.

주님은 남편을 세워가는 게 무엇인지,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형제가 머리가 되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신다. 결국은 머리를 세우는 돕는 배필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었다. 주님이 각 사람 안에 부여하신 은혜를 보게 된다.



▶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오세영 선교사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언약갱신 (5)

# 복음을 통해 허락된 패자부활전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몸 된 유기적 공동체, 교회를 허락해주셨다. 특별히 초대 교회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흥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순결한 군대와 같았다. 건물이나 신학교, 대단한 조직체계도 없어 세상에 게 뜬어 먹히지만, 도망 다닌 자리마다 복음이 전파되며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건물, 재정, 조직 등 아무것도 메이지 않은 초대교회의 생명은 어디든 스며들어 주의 생기를 충만하게 만들었다.

## 믿음으로 누려지는 구원의 승리

주님은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를 행위구원과 권력, 건물의 껍데기에 싸인 가톨릭 속에 있던 루터를 통해 재발견시키셨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를 사용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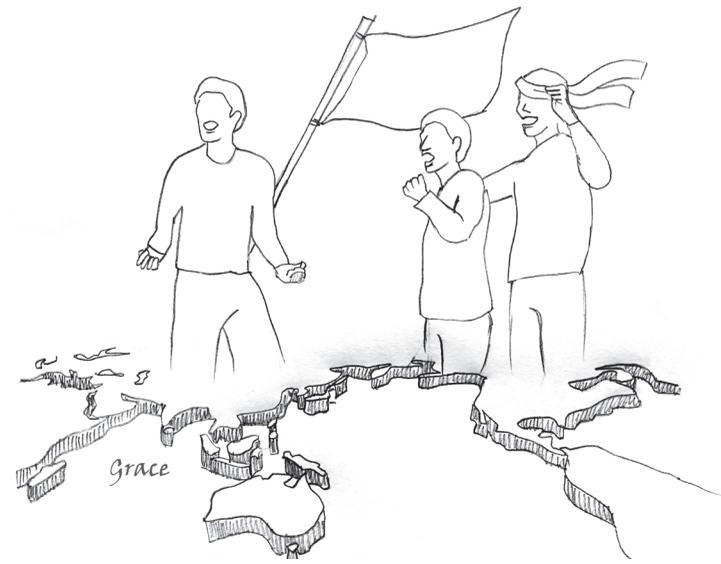
서 오직 믿음, 절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 세대에 그 날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알면서도 문제와 환란과 고민들 앞에 활기를 잃어버린, 마치 물에 빠져가는 배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난다. 복음을 알지만 여전히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가.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이 허락된다. 어제의 실패, 수많은 넘어짐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철저히 주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진리 앞에 완전히 드러난 결론을 붙들고 주님께 나가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받은 구원을 누리는 승리생활이 은혜로 누려짐

을 간과하고 전전긍긍하기도 한다. 자신의 최선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원받음은 나의 최선, 열심, 혈통, 선행 등 무엇으로도 불가능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승리할 자가 없다(요일 5:4~5).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은혜로 얻은 진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오직 믿음만으로 승리를 누린다는 것이다.

## 이길 수밖에 없는 예수생명

'세상을 이기느니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교회들은 각각 위기 속에 있었다. 은혜의 때인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한다.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일러스트=노주나

에 없다.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진리를 지키고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나태해져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탄의 권좌 아래에서 흔들리고, 음란에 빠지고, 이세벨의 공격과 도전에 서있는 당시의 교회들과 지금의 교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협과 도전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나 연약함 때문에 진다고 말씀하지 않

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길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나 예수가 이리하니, 너는 이기라! 내가 너의 머리이니 너는 이기라!"

모든 상황에서 주의 몸 된 교회는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길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2016년 8월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기도미디어  
BIBLE & PRAYER MEDIA

## 2017순회복음집회 오디오 CD

# 오직 믿음

**영원한 운명을 바꾸게 되는 믿음!**  
종교개혁의 핵심이며  
복음의 본질의 핵심이 되는  
오직믿음.  
두려운 경고이자  
눈물겨운 감격스런 초대가 여기 있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자.

생명 주권자이신 주님은 임신이 안 되는 몸에 아이를 은혜로 주셨다. 생각지도 못한 임신을 통해서도 주님은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주님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으로 알아가고 있다. 이번 졸업여행 때의 일이다. 유산의 위험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신부에게는 장거리 여행을 권하지 않는다. 그런 졸업여행을 스스로 믿음으로 결정해서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한번도 보지 못한 이 아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정말 완벽한 교제 안에 있었는데, 우리를 잃어버리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한번도 경험하지

오디오 CD(2장 한세트) 6,000원  
약 20분씩 4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입문의 야긴과 보이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

### 임신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못한 '엄마'의 시간을 지내야 하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 아이 하나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걸로 충분하단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바라봤다. 교회에서 학생 사역을 십수년간 했다. 그렇게 섬겼던 그 시간보다 이 아이 하나를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 주님은 나를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주셨다.

###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은 교회를 보게 하셨다. 복음기도신학교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나를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인도하셨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

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심령을 일으키는 자로 부르셨다. 존재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마음이 놓인다. 지금 여기 신학교에 있어도 교회를 세우는 자고, 열방이든 세상 이든,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세우는 자로 존재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내가 원하는 부르심을 잡고 있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부르심, 존재적인 부르심인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

우리 가정은 재일교포인 남편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본을 바라보고 마음에 품게 됐다. 우리 가정이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아니면 열방에 있든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는 통로로 서기를 기도한다. 더욱이 우리가 교회로 서기를 원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이 매순간 드러질 구한다. 이것을 놓치면 끝이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사랑하여 따라가는 제자로 서기를 기도한다. [GNPNEWS] 정리= H.M.



# “시택에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다”

공동체신앙 훈련을 받으며 가게 된 아웃리치는 내 삶에서 정말 잊지 못할 순간들이었다. 주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치는 순간이 없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를 준비하면서도 말씀은 내 영혼을 이끌어 가셨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들에서 말씀은 나를 책망하시기도 위로하시기도 하면서 참 자유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 혈투병 걸렸던 여인의 병의 근원이 치료되고,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해하며 걱정했다. 머리의 이해와 감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어 한 걸음씩 나를 드릴 때, 주님을 누리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의 자리뿐임을 실제 되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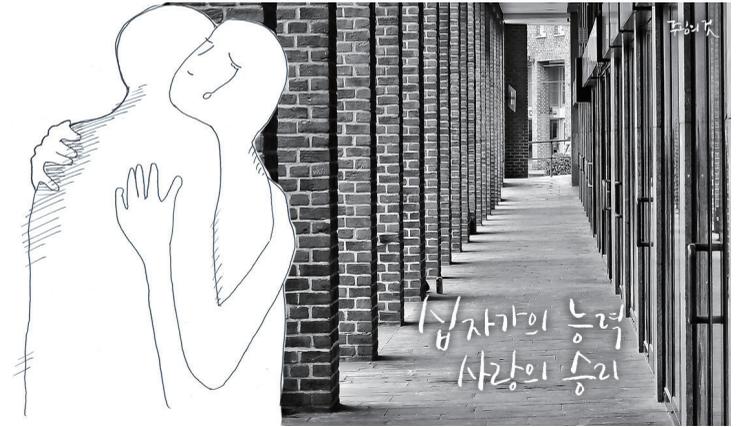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 한 번의 전화통화로 주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다. 난 겉으로 보이는 기도 잘하기, 지체들을 잘 섬기는 등의 변화가 아닌 정말 주님만 남는 변화를 원했다. 주님은 훈련이 끝나면 정리하려던 관계의 문제를 ‘지

금’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건 시택에 전화를 걸어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했지, 내가 용서를 구할 생각까지 없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보게 하셨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택에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소망 되신 것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함께 맞이하고 싶다며 어머니께 내 마음을 나누었다.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었다. 죽음을 생각할 만큼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고

십자가는 참으로 신기한 능력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나아갈 때, 완전한 승리가 내 안에 임한다. 완전한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믿음으로 누리며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웃리치는 도착하면서부터 부끄러운 순간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더욱 은혜

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기도했다. 선교지에 도착해 처음 보게 된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이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벧전 3:3~4) 그러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깊이 묵상하지도 않았다. 하루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전통 옷을 사기 위해 쇼핑물에 갔다. 난 그동안 살아오면서 옷을 사러 다닌 적도 없고 액세서리에도 관심이 없었다. 당연히 나는 꾸미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옷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자 난 주님을 잊고 옷에 정신이 팔렸다.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아웃리치까지 왔는데 옷에 정신이 팔리다니, 그러나 절망도 잠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나의 단장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었다. 나의 마음을 들추어내셔서 오직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일러스트=박남희

하신 은혜에 감사했다. 팀의 회계를 맡은 나는 다음날 재정을 계산해보았다. 한 달 동안 사용해야 할 재정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아침에 묵상도 잘 정리되지 않았다.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계산기를 연신 두드려댔다. 그러나 곧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계산기를 집어던졌다. 더불어 내 마음의 계산기도 던졌다. 그리고 주님만 더욱 사랑함으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주님은 놀랍게 일하셨다.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

데 주님을 바라보니 파파야와 석류를 넘치도록 주셨다. 맛있는 것을 먹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기뻐다. “노아야, 기쁘니? 너는 나를 믿기만 해.” 주님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행복자로 바뀌 주신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GNPNEWS] 정임마누엘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 부흥을 위하여

### 북한, 이동의 자유 침해 “심각”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식량난으로 시작된 탈북 사태에 엄격히 대처해왔고, 해마다 증가하는 탈북사태에 대해 2000년대 후반 이후 국경경비와 단속을 강화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년간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동의 자유 침해가 가장 심각한 침해 중 하나라고 밝혔다.  
2009년 이래 국가안전보위부(현재 국가보위성) 차원에서 탈북자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감시와 사상교양을 강화했다. 또 국경지역 여행증 및 숙박결함과 국경 경비 사령부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국경지역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해안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주요 탈북 경로에는 철조망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  
더욱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북한 병사들에게 월경시 총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실제로 탈북과정에서 총기사용이 이뤄

졌다는 다수의 증인들이 모아졌다.  
**북한 병사, 월경 시 총살**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 변방대에 구금돼 있다가 북한 국경 관할 국가보위성으로 송환된다. 이곳에서는 남녀가 별도로 수용되지 않고 몸수색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숨겨온 돈을 빼앗기기도 한다.  
북한 조사기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 매우 치욕적인 일도 서슴치 않는데, 여성수감자의 경우 비위생적인 질 검사, 발가벗긴 채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게 하는 행위, 강제로 용변을 보게 하고 검사하는 일 등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탈북 후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올 경우에 형사 처벌이 아닌 교육 조치만 받은 사례들도 있었으나 김정은 정권 이후 탈북민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 곧바로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잊지 않았다(원제 Not forgotten: The True Story of My Imprisonment in North Korea)’의 저자인 케네스 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입북하



▶ 북한역류생활에 대해 밝히고 있는 케네스 배 선교사(출처: YTN News 영상 캡처)

여 노동교화형을 받고 735일간 억류돼 있었다.  
처음 4주 동안은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11시까지 심문을 받았다. 매우 큰 압박 속에서 북한 당국자가 요구하는 참회서를 수백 쪽씩 제출했으며 심문 기간이 끝난 뒤에는 주 6일씩 노동을 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0시간씩 고된 노동을 했다. 그 기간 동안 케네스 배의 체중은 27kg이 줄었고, 심각하게 건강이 훼손된 후에야 북한에서 풀려났다. 그는 구타나 고문 등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한 적은 없지만, 북한인 수형자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다고 밝힌 바 있어 북한인 수형자의 인권유린 상황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013년까지는 1차 북송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만 형을 받는 ‘노동단련대’가 주어지고 2회 이상 북송된 경우에만 노동교화형이 주어졌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탈북 횡수에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바로 부과되며 교화 기간은 탈북횡수 및 중국 체류 기간에 따라 3~5년이 주어진다.  
또한 한국행을 위해 탈북하다가 북송될 경우 ‘조국반역죄’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다. ‘비법국경출입죄’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 수용된다. 특히 전거리교화소는 수감자의 70% 정도가 비법월경으로 수용되어 있다. [GNPNEWS]

## 복음의 능력

### 십자가에 대해 결단하라

오늘날 신자들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성경의 기준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려는 지도자들은 재미를 즐기려는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십자가의 엄격함을 완화시킨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로 주님은 진노하실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 십자가를 회피하든지, 십자가 위에서 죽든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은 우리가 끝없는 생명의 능력 안에서 깨어지고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침투해 극도의 고통을 준다. 우리를 아끼지 않으며,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명성과 이기적인 삶을 끝장낼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GNPNEWS]  
<철저한 십자가(2011), A.W.토저, 규장각>

# 다시복음으로 한국교회회개집회

# 주여,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17

## 첫 번째 집회

**일 시** 3.25(주일)~27(화) 오후7시  
월, 오후2~5시 기도 세미나  
화, 오후2~5시 목회자 강좌

**장 소** 인천 내리교회(담임: 김흥규 목사)

**메시지** 김용의 선교사(로그미션)

## 두 번째 집회

**일 시** 4.1(주일)~3(화)  
주일, 오후3시 / 월·화, 오후7시

**장 소** 울산 우정교회(담임: 예동열 목사)

한국교회회개운동본부와 복음기도동맹은  
2018년을 한국교회 회개기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회개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관련정보** 복음기도동맹 사이트([www.gpally.org](http://www.gpally.org))

**문의** 010-5938-4621(복음기도동맹 사무국)

**섬김단체** 복음기도동맹, 한국교회회개운동본부